라일라의 행동력 하나만은 오만한 황제도 고개 숙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가 밀라를 살핀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의원이 방문했으며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모님, 레첸스 자작 내외에게 통신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빠른 라일라의 행동과는 달리 레첸스 자작 내외의 답은 한참 후에나 도착했다. 밀라의 건강 걱정과 더불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레반 부인의 별장으로 찾아오겠다는 근심 하나 없는 짤막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통신을 받은 밀라는 한참을 고민하다 통신 대신 편지로 부모님께 답했다. 영양가 없는 답에 가격 있는 통신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 사랑하는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라일라가 워낙 걱정이 많아 본의 아니게 부풀려서 이야기가 전해진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것 외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니 부모님도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놓아주세요. 기억은 의사 선생님과 라일라의 도움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보기로 하였으니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레반 부인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 방문해주신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후 레니에스 성일을 전후로 하여 제가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애정을 담아, 부모님의 딸 밀라로부터. ]

부드러운 어조로 안부의 편지를 보내는 일은 정말이지 오랜만이었다. 일레인은 과거 밀라의 일기와 메모 등을 참고하고 연습하여 최대한 비슷한 글씨체로 안부의 글귀를 적어내렸다. 기억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느니, 큰 도움이 될거라느니 하는 말을 적으며 밀라는 다소 양심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밀라가 아닌 밀라의 몸을 차지한 완전한 타인이니 기억을 되찾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라의 주변 사람들이 갑작스레 변한 그녀의 모습에 슬퍼하지 않기를 바랬다. 물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건데 밀라의 부모님이 딸의 변화를 슬퍼할 거 같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영애의 기억 이상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의 문제… 말인가요?”

“신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마법이나 저주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으니 말이지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우아한 봉투에 넣어서 밀봉했다. 할 일이 없어진 밀라는 수정으로 세공된 고급진 만년필을 조심성 없게 빙글빙글 돌리며 의사와 라일라가 나눈 대화를 회상했다.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던 의사의 소견에 어두워지던 라일라의 표정이 떠올랐다. 밀라가 몇 달이나 몸져 눕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라고 하였다. 마법사인 밀라는 마법 연구를 하던 도중 큰 마법 사고에 휘말렸었다고 한다.

‘사고는 사실이지만… 뭔가 사정이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때때로 침울해지는 라일라의 표정이나 진짜 밀라의 기록들… 거기까지 고민하던 밀라는 만년필을 테이블에 살포시 놓아두며 고개를 저었다. 일레인이던 시절, 매일같이 고민하고 주변을 의심하던 시절의 안 좋은 버릇이 밀라로서의 그녀를 따라다녔다. 한 번 들인 부정적인 습관과 감정은 영혼에 조각 마냥 새겨진 듯 새 몸에서도 쉽게 떼어지지 않는 법이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는데도.

‘아니야, 고민하지 말자.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겠지. 사서 지칠 일은 하지 않을 거니까.’

일레인은 치열하게 살았으나 결코 스스로 원하여 살얼음판 같은 삶은 산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행복해지고 싶었다. 야망 없고 재미없고 평범하기 그지없어서 역사 속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여도…

밀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얇은 숄을 걸쳤다. 레반 부인이 찾아오기로 약속한 시간이었다. 고민해보아야 알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은 저 너머로 밀어버렸다. 그녀는 적어도 지금만큼은 여유롭고 한가한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 \* \*

“밀라! 쨘, 오랜만이지?”

“아…”

“놀라게 해주려고 미리 말 안 했어. 엄마는 반대했지만…!”

약속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서야 느긋한 성정의 레반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밀라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촐싹거리며 붙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밀라가 아는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레인이던 시절 잠시 대면한 적이 있어서 그녀가 일방적으로 안면을 익힌 사람이었지만.

‘황제의 마법사…’

실리카 레반이었다. 일레인으로서 마지막 순간, 황제가 데려온 열 두명의 정예 군인 중 한 명으로 뛰어난 방어 마법 실력을 가진 이였다. 밀라는 괜히 긴장하며 제 옷자락을 쥐었다. 무너진 석상에 깔리던 그 감각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당황스러웠다.

“목소리 좀 낮추렴 릿카. 밀라가 놀라잖니.”

“제 목청 큰 게 하루이틀인가요?”

“밀라는 환자란다.”

레반 부인의 가벼운 나무람에 그제서야 한풀 기세를 꺾고 얌전한 모습을 보이는 실리카였다.

“정신 좀 봐. 그… 밀라 널 놀리려고 온 건 아니고… 아 좀, 엄마! 부채로 때리지 마시라고요.”

“기억에 이상이 있다고 들었단다. 릿카는 너와 오랜 친구잖니. 어린 시절 이야기라도 하면서 기억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며 따라왔단다.

레반 부인이 부채로 제 딸을 밀어내고, 실리카가 원숭이처럼 펄쩍 뛰며 제 어머니에게 져주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다. 밀라는 두 사람을 보며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렸으나 가라앉은 표정을 숨길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레반 모녀는 밀라가 착잡해하는 이유를 알아서 오해해주었다. 하긴 ‘당신과 당신 딸이 나를 죽이러 온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고 말하면 누가 믿겠는가. 밀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어두운 얼굴을 미안함 가득한 표정으로 꾸며내며 밀라라면 보였을 법한 자신 없는 얼굴을 했다.

“죄송해요. 두 분 다…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괜찮아, 기억 문제는 라일라 씨한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실리카는 머뭇거리는 밀라의 손을 쭉 잡아끌며 특유의 시원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녀의 미소를 보며 밀라는 문득 겨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황제의 뒤에서 한 두 마디씩 악담을 퍼붓던 다른 이들과 달리 실리카는 딱 황제가 시킨 일만을 하고 있었다. 악담도, 위협적인 시선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녀가 황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니 만큼 그 일을 다할 뿐, 일레인에게 까닭 없는 적의를 보이지 않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엇이 대수냐고 할 정도로 별 것 아닌 사소한 부분이었으나 그 기억 때문인지 아까 만큼 그녀가 두렵지는 않았다. 밀라는 잡아 끌린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실리카와 눈을 마주쳤다. 신경써주어서 고맙다고 막 입을 떼려고 할 때, 누군가 중얼거리듯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실…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편을 들어서는 안돼. 네가 미움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 …」

‘…! 방금…’

대체 뭐였지? 한기가 들 만큼 서늘한 속삭임에 밀라는 숨을 들이켰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익숙함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심장을 한순간 심장을 옥죄여왔다. 그것은 일레인의 감정이 아니었다.

“밀라? 괜찮아?”

“아… 네, 실리카 씨의 머리장식이 빨간색으로 빛난 거 같아서...”

“뭐?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이거든? 그리고 실리카 씨라니, 실이라고 불러. 너무 정중하니 소름 돋잖아.”

“…실리카.”

“그래그래. 어머니는 라일라 씨와 할 말이 있으시다니까, 우리는 잠시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 보내자. 궁금한 게 있다면 전부 대답해줄게.”

네가 공손하게 말하니 적응되지 않는다느니, 자신과 밀라가 얼마나 친했는지 기억하냐느니 따위의 투덜거림을 한 귀로 흘러 넘기며 밀라는 대충 맞장구쳐주었다. 실리카를 따라가는 내내 밀라의 머리는 재빠르게 돌아갔다. 아까의 속삭임은 ‘진짜 밀라’의 기억 중 일부였을까? 그녀의 기억이 무의식중에 남아있는 걸까? 열심히 고민을 해보아도 알 수 없는 일들 투성이였다. 정말 골치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느끼며 그녀는 쉴 새 없이 입을 놀리는 실리카를 바라보았다. 실리카는 밀라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한참을 재잘거리는 중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이 없어 보인다거나 성가시다거나 하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 \* \*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는 소리가 거짓은 아닌 듯, 실리카는 밀라의 어릴 적 사진 여러 장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 자체가 마구 찍기에는 만만한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법 되는 장수였다. 기계나 마도공학에 관심 많은 어머니를 둔 덕이었다. 그녀 보여주는 사진들 속에서 밀라는 항상 실리카와 함께였다. 진짜 밀라의 기억이 없는 현재의 밀라마저도 그 사진들과 실리카의 말 하나하나에서 따스함과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라일라와 레반 부인, 그리고 실리카까지. 밀라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마음 써주는 사람이 셋이나 되는 걸 보건데 본래의 밀라는 참 좋은 사람이었을 터였다.

‘상냥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기분이네요.’

현재의 밀라는 속으로만 한숨을 내쉬며 실리카가 펼쳐 든 앨범 한 구석을 가리켰다. 10살도 되지 않은 작은 꼬마들이 당시 유행하던 외출복을 사랑스럽게 차려 입고 정면을 보는 사진이었다. 어린 실리카는 지금과 다를 바 없이 쾌활하게 웃고 있었으며, 어린 밀라는 작은 실리카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고 있었다. 귀엽다는 것을 빼면 크게 특별하지 않은 사진이다. 밀라가 주목한 부분은 아이 둘이 아닌, 사진이 찍힌 배경이었다.

“이건…”

“9살 때인가? 기억나?”

눈을 반짝이며 물어오는 실리카의 질문에 밀라는 고민하듯 턱을 괴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

“기억이 음… 언제 찍은 사진인지 설명해주시겠나요. 익숙해서요.”

“익숙해? 사진이 효과 있는 걸까? 기억이 되돌아오고 있을지도 몰라…!”

실리카의 상기된 어조에 밀라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어보았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반응이었으나 실리카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서 사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처음 에브릴 청사 무도회장에서 찍은 사진이야. 레니에스 성일에는 전국의 마법사들을 불러 모으잖아. 우리도 꼴에 마법사라고 어머니를 졸라서 참여했다가 신나서 그만…”

“사고를 쳐서 혼나고 새로 맞춘 외출복에 음식 자국을 남겨 레반 부인께서 혼을 내셨겠어요.”

“…너 기억 잃은 척하는 건 아니지?”

“그럴리가요.”

엘하임 제국의 마법 중심지이자 마법사들의 요람인 에브릴 청사. 멀지 않은 곳에 제국 제일가는 로시난테 아카데미가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장소였다. 어떻게 이러한 에브릴 청사를 잊을 수 있었을까? 그녀의 언니이자 악녀 엘레니아가 처참하게 손가락질 당한 곳도, 일레인이 언니의 유품을 몰래 넘겨받은 곳도 바로 그 장소였는데. 세월에 의한 망각은 정말 놀라웠다. 20년 넘도록 수도와 그 근처로는 얼씬거리지도 않았던 일레인의 시절 탓에 밀라는 놀라울 정도로 에브릴 청사에 대해 완벽히 깜빡하고 있었다.